

統一新羅 四天王像 研究*

權 江 美

Kwon, Kangmi
國立慶州博物館 學藝研究士

I. 머 리 말

四天王은 인도 神話時代의 護世神 또는 方位神이 불교에 습합되어 불교의 護法神으로서 여러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 天部神 중의 하나이다. 원래 인도에서는 도티(Dhoti)를 입고 술을 걸친 貴人形으로 표현되었으나,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점차 분노형의 武裝形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사천왕상은 중국 唐代에 정립된 분노형의 무장상의 영향으로 성립된 것으로, 舍利器·石塔·浮屠·石燈 등의 莊嚴彫飾으로 대부분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역동적인 조형성은 당시에 유행한 佛·菩薩像에 견주어 전혀 손색없이 우수하며, 수많은 작례는 당시 四天王信仰의 성행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간 통일신라 사천왕상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주로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의 2001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에 대한 논고는 다음과 같다.

文明大, 「新羅四天王像의 研究」, 『佛敎美術』 5, 1980.

沈盈伸, 「統一新羅時代 四天王像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3.

曹元榮, 「新羅下代 四天王浮彫像 研究」,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4.

이밖에, 석탑 表面 莊嚴像의 일부로 다루어진 글은 다음과 같다.

張忠植, 「統一新羅石塔 浮彫像의 研究」, 『考古美術』 154·155, 1982.6.

秦弘燮, 「石塔表面의 裝飾彫刻」, 『石塔-韓國의 美9-』, 중앙일보사, 1981.

개별 작품이 소개된 글은 다음과 같다.

姜友邦, 「四天王寺址出土 彩釉四天王浮彫像의 復元的 考察」, 『美術資料』 25, 1979.

_____, 「新良志論-良志의 活動期와 作品世界」, 『美術資料』 47, 1990.

_____, 「石窟庵 佛敎彫刻의 圖像的 考察」, 『美術資料』 56, 1995.

文明大, 「良志와 그의 作品論」, 『佛敎美術』 1, 1973.9.

_____, 「石窟庵佛敎彫刻의 研究」,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7.

張忠植, 「釋良志의 彫刻 遺風」, 『新羅文化』 3·4合輯, 1987.

崔應天, 「文武王代의 美術-彫刻과 金屬工藝-」, 『新羅文化』 16, 1999.

水野敬三郎, 「感恩寺西塔舍利具의 四天王像」, 『佛敎藝術』 188, 1990.2.

たなかしげひら, 「慶州四天王寺塔扉의 四天王畫像と同塔址出土의 四天王像綠釉磚」, 『佛敎藝

통일신라 전기의 특정 작품에 치중하여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으며 통일신라 후기 작품은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다. 본고에서는 통일신라 전시기에 걸친 사천왕상의 양식적인 흐름을 당대 사천왕상의 변천과정과 비교하여 그 영향관계를 살펴본 후, 통일신라 전기와 후기 사천왕상의 시기별 특징을 지역성과 표현 유물별 특수성까지 포함하여 다각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四天王像의 成立과 展開

1. 四天王像의 成立

四天王은 持國天·增長天·廣目天·多聞天의 四天으로, 지국천은 東方에 있는 勝身洲를 수호하며, 증장천은 南方의 臚部洲를, 광목천은 西方의 牛貨洲, 다문천은 北方의 俱盧洲를 각각 수호하고 있다.²⁾

경전에서는 기원전 4~3세기경에 성립된 『長阿含經』에서 護世者로서의 공덕이 설해지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護國三部經³⁾의 하나인 『金光明經』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 후 약 30여종이 넘는 많은 불교경전에 등장하여 그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미산의 수호신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鎮護國家神으로 정착되어간다. 진호국가신으로의 변화는 사천왕이 정법을 護持하며 諸經을 傳持하는 국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역할이 설해지면서 사람들에게 호국경전을 받들도록 권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⁵⁾ 이와 같은 四天王信仰의 융성으로 말미암아

術』 84, 1972.

2) 『魅惑の佛像-四天王』, 2000. 12, 毎日新聞社, p.38, 사천왕 각각에 대한 설명은 줄고 『統一新羅 四天王像 研究』, 동아대석사학위논문, 2001, pp.4~5 참조.

3) 『金光明經』은 『法華經』, 『仁王經』과 함께 호국삼부경이라 불리며 사천왕신앙의 근거가 되는 경전이다. (佛敎新聞社 編, 『佛敎經典의 理解』, 불교시대사, 1997, p.537)

4)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사천왕에 대한 언급은 4권본 6장 「四天王護國品」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四天王護國品」에서는 나라에 원적이 침입하거나 飢饉, 疾病 등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칠 때 이 경을 受持讀誦하면 사천왕의 도움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金光明經』은 5차례 걸쳐 한역되었다.

5)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경전은 『金光明經』 외에 支謙(223~253)譯 『佛說太子瑞應本起經』 2권을 비롯하여 梁僧伽婆羅譯(512) 『阿育王經』 10권, 劉宋智嚴·寶雲共譯(427년경) 『佛說四天王經』 1권, 不空譯 『佛母大孔雀明王經』 3권 등을 들 수 있다. (臺信祐爾, 『敦煌의 四天王圖像』, 『東邦學報』 27, 1994, p.10.)

四天王像의 활발한 조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2. 四天王像의 展開

사천왕상은 원래 인도에서는 貴人形(圖1)으로 표현되던 것이⁶⁾ 西域으로 전래되면서 武將形(圖2)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는 『金光明經』의 『四天王護國品』에 기록된 사천왕신앙이 전래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서역은 오아시스국가라는 외부의 침략이 잦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護國·守護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그 도상 또한 간다라의 귀인형과는 다른 무장형으로 전개되어갔던 것이다.

서역을 거쳐 중국에 전래된 무장형 사천왕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사천왕상의 직접적인 시원이라 할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은 특히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중국 唐代 사천왕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의 사천왕상 역시 『金光明經』이 번역(412~421년)된 이후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하며, 현존 작품은 南北朝時代부터 시작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특히 사천왕상을 四體一組로 제작한 사례는 매우 적으며 四體中 二體, 즉 二天王으로 造像한 예가 압도적으로 많다. 四體一組로 조상된 예는 『洛陽伽藍記』나 『歷代名畫記』에 기술된 한 두 예와, 현존 작품상으로는 敦煌莫高窟에서 보여지는 六朝부터 五代頃에 걸친 塑像 및 壁畫 수점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⁷⁾ 중국에서의 사천왕상 제작 역시 사천왕신앙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사천왕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회멸죄를 하면 사천왕의 護持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국왕이 『金光明經』을 護持하면 나라를 鎮護하고 외적 및 天災憂患이 사라지는 것을 主眼으로 하고 있다.

五胡十六國時代부터 六朝時代에 걸친 戰亂의 시대에는 이미 호국경전이 상당수 전래되어 사천왕 호국신앙도 성행하였으며, 이후 대제국으로 발전한 唐代에 이르러서는 邊境鎮壓과 國家奉安을 위하여 국가의식이 명료한 『金光明最勝王經』의 『四天王護國品』에 의한 사천왕신앙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⁸⁾ 아울러 唐代에는 사천왕상의 중국화가 이루어져 분노형 무장상으로 그 이미지가 정형화되고 석굴사원의 입구나 각종 불비상 등 다양한 불교미술품에 걸쳐 활발한 표현이 이루어지게 된다.

6) 金香淑, 『인도의四天王의圖像的特徵』, 『密教圖像』 15, 1996 참조.

7) 錦織亮介, 『天部ノ佛像辭典』, 東京美術, 1983, p.61.

8) 錦織亮介, 위의 책, p.67.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사천왕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金光明經』의 전래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불교가 유입된 高句麗에서는 天王像으로 추정되는 平壤 平川구역에서 출토된 金銅 透彫 神將像(圖3)이 있다. 이 상은 머리에 넓은 삼면보관을 쓰고, 하반신에는 裙依를 입은 채 天衣가 길게 훑날리고 있으며, 지물로는 칼과 창을 든 채 연화좌위에 서 있는데, 보관 및 갑의의 형식 등 전반적인 표현양식은 중국 南北朝時代에 유행하던 부드러운 보살형 이미지의 天王像(圖4·5)을 계승하고 있다.

百濟에서는 義慈王 20년(660년) 天王寺의 탑이 진동했다고 하는 기록⁹⁾ 등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사천왕신앙에 의한 사찰이 건립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 작품이 전해지지 않아 그 작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백제는 聖德太子代까지 일본의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日本書紀』 卷21, 崇峻天皇即位前紀條의 기록으로 587년에 사천왕신앙의 사례와 이를 통한 사천왕사 창건이 있었음은 백제 사천왕신앙의 성립이 이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四天王寺에서 출토된 외당의 연화문이 백제계¹⁰⁾란 사실에서 일본 사천왕신앙의 전래가 백제를 통해서 유입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古新羅에서는 『三國遺事』의 범홍왕과 이차돈의 대화중에 ‘피를 뿌려 목숨을 끊어서 일곱 마리 짐승을 스스로 구제한다.’¹¹⁾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金光明經』 卷 4 捨身品(大正藏16, 354~355)에 인도 마하라타라는 임금의 막내 왕자인 布施王子가 새끼를 낳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해 죽을 지경에 이른 범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몸을 던져 범의 먹이가 되어 아사 직전의 일곱 마리 새끼 호랑이를 살리려 했다는 고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작품은 전하지 않지만 皇龍寺 金堂址 후면에 사천왕상의 것으로 여겨지는 대좌도 남아 있다.¹²⁾ 현존 작품에서 그 유풍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황룡사지 9층목탑지 심초석에서 출토된 방형의 金銅 舍利函의 네 면에 표현된 線刻의 神將像을 들 수 있다.(圖6)¹³⁾ 이 상은 황룡사탑의 창건과 같은 시기인 645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목에는 둥근 頸當을 두른 채 지물로는 칼과 활 등

9) “風雨暴至震天王道讓二寺塔又震白石寺講堂”(『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35 義慈王20年 5月條)

10) 出口常順, 『御手印緣起-四天王信仰の展開』, 『佛教藝術』 59, 1965, p.13.

11) “洒血摧命 自捨七獸”(『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獸鬪減身條)

12) 沈盈伸, 『統一新羅時代 四天王像 研究』, 『美術史學研究』 216, 1997, p.11.

13) 위의 논문, p.7.

의 무기류를 들고 있다. 갑의 및 전반적인 형상은 앞서 살펴본 고구려의 금동 투조신장상과 유사한 부드러운 보살형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이 신장상은 비록 사천왕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같은 신장계열로 당시 사천왕상의 유품을 충분히 짐작케 하여준다. 한편 황룡사 9층목탑은 『三國遺事』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장인 阿非知의 기술지도하에 창건되었으며, 사리함이 발견된 舍利孔의 구조가 백제의 傳天王寺木塔址 심초석과 같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일본 最古의 사천왕상인 飛鳥時代の 法隆寺 金堂 四天王像(圖7)과 法隆寺 玉蟲廚子 扉繪에 표현된 天王像(圖8)의 표현양식이 황룡사지 금동 사리함 네 면의 신장상과 매우 흡사한데, 飛鳥時代 법륜사의 불상이나 공예품, 기와 등에 반영된 백제의 영향관계를 상정해 볼 때 이 신장상이 백제계일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

III. 統一新羅 四天王像의 제작사례

우리나라에서 사천왕신앙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호국적 염원이 강하게 일어났던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부터 활발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특히 『金光明經』 관련 기록과 『三國遺事』에 神衆에 관한 내용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 당시 수많은 四天王像 조성의 근거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기록상으로는 먼저 良志가 靈廟寺의 天王像을 제작했다¹⁴⁾는 내용을 들 수 있으며, 『三國遺事』의 臺山五萬眞身條에 『金光明經』을 受持讀誦하고, 華嚴神衆을 받들었던 기록이 전하고 있다.¹⁵⁾ 또한 『三國史記』에는 704년 당나라에 갔던 金思讓이 돌아와서 最勝王經을 바쳤다는 기록¹⁶⁾이 있는데 여기서 最勝王經이란 703년 義淨에 의해 새로이 번역된 10권본 『金光明最勝王經』으로 추정되며, 경전이 번역되자마자 통일신라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밖에 『

14) “釋良志 未詳祖考鄉邑 唯現迹於善德王朝... 旁通雜譽 神妙絕比 又善筆札 靈廟丈六三尊 天王像 并殿 塔之瓦 天王寺塔夏八部神將 法林寺主佛三尊 左右金剛神等 皆所塑也 書靈廟法林二寺 額”(『三國遺事』 第四卷 義解 第五 良志使錫 條)

15) “..此山乃白頭山之大脈 青在東臺北角下北臺南麓之末 宜置觀音房 安圓像觀音及青地畫一萬觀音像 福田五員 畫讀八卷金經仁王般若千手呪 夜念觀音禮懺 稱名圓通社... 寶川庵改創華藏寺 安圓像毗盧遮那三尊及大藏經 福田五員 長門藏經 夜念 華嚴神衆 每年說華嚴會一百日 稱名 法輪社”(『三國遺事』 第三卷 塔像 第四 臺山五萬眞身條)

16) “三年春正月 熊川州進金芝 三月入唐金思讓廻 獻最勝王經”(『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條)

『三國遺事』에는 의상대사와 관련한 수많은 일화에서 神衆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華嚴經』에 의한 華嚴神衆으로,¹⁷⁾ 사천왕상의 신중으로의 배치는 8세기 중반 석굴암 사천왕상 이후 제작된 수많은 석탑과 부도 등에 확인되고 있다.¹⁸⁾

현존하는 통일신라 사천왕상은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舍利器에 9점, 石塔에 14점, 浮屠에 9점, 石燈에 5점, 기타 3점 등으로 총 40점¹⁹⁾에 달한다. <표1> 그러나 대부분이 석조미술품에 표현되어 있어, 세월의 흐름으로 마모 혹은 결실되거나 원래부터 소략하게 표현되어 그 세부형상의 식별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갑옷의 세부표현이나 지물의 구분 등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표현양식의 식별이 특히 모호한 경북 醴泉東本洞三層石塔 上層基壇에 표현된 사천왕상, 합천 海印寺石燈의 火舍石에 표현된 사천왕상, 太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과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의 塔身石에 표현된 사천왕상, 및 방위 구분이 모호한 傳南原出土 金銅舍利函 四天王像 등은 부득이하게 형식 분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7) 全海住, 「『三國遺事』에 보이는 ‘神衆’에 대한 고찰」, 『佛敎學報』 37, 2000

18) 拙稿, 앞의 논문 참조.(통일신라 후기 석탑과 부도에 신중적 배치로 표현된 사천왕상에 대해 화엄신중일 가능성 제시)

19) 이밖에 사천왕상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경북 안동 新世洞 塼塔 기단부에 부조된 신장상이 있었으며, 사천왕상으로 확인된 작품 중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작품으로는 부산대학교 박물관 뜰에 있는 礪高寺址 출토 塔身 및 東京國立博物館 소장의 전남 순천 출토 金銅八角舍利函이 확인되었다.

〈표 1〉 統一新羅 四天王像 制作事例

구분 번호	四天王像 表現 造形物	制作時期	表現位置	配置形式	所在地	備考
1	感恩寺西塔舍利函	682년경	身部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8-1
2	感恩寺東塔舍利函	682년경	身部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8-2
3	感恩寺東塔殿閣形舍利函	682년경	殿閣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8-3
4	佛國寺釋迦塔舍利盒	751년경	身部	양측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8-4, 二天王像
5	傳 南原出土舍利函	8~9세기	身部	4면 각1구	전북 남원	圖34 손상구분不可
6	慶州 東川洞出土舍利盒	828년	身部	4면 각1구	전남 구례	圖28-5
7	桃李寺舍利函	9세기	身部	6면중4면 각1구	경북 선산	圖28-6
8	皇龍寺舍利內函	872년경	舍利內函門	문비 2구	경북 경주	圖28-7, 二天王像
9	羅原里五層石塔舍利盒	9세기	身部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8-8
10	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	8세기중반	1層塔身	4면중2면 각2구	전남 구례	圖29-1
11	遠顛寺東三層石塔	8세기후반	1層塔身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9-2
12	遠顛寺西三層石塔	8세기후반	1層塔身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9-3
13	慶州博物館1塔身	9세기	1層塔身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9-4
14	慶州博物館2塔身	9세기	1層塔身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9-5
15	皇龍寺西寺址塔身	9세기	1層塔身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9-6
16	實相寺百丈庵三層石塔	9세기	1層塔身	4면 각1구	전북 남원	圖29-7
17	中興寺址三層石塔	9세기	上層基壇	동·남면 각2구	전남 광양	圖29-8
18	僧燒谷寺址三層石塔	9세기	1層塔身	4면 각1구	경북 경주	圖29-9
19	英陽 縣一洞三層石塔	9세기	1層塔身	4면 각1구	경북 영양	圖29-10
20	義城 觀德洞三層石塔	9세기	上層基壇	4면 각1구	경북 의성	圖29-11
21	英陽 化川洞三層石塔	9세기	1層塔身	4면 각1구	경북 영양	圖29-12
22	醴泉 東本洞三層石塔	9세기	上層基壇	4면 각1구	경북 예천	마모심함
23	華嚴寺西五層石塔	9세기	1層塔身	4면 각1구	전남 구례	圖29-13
24	康居和尚塔	844년	塔身部	8면중4면 각1구	강원 원주	圖30-1
25	太安寺寂忍禪師照輪清淨塔	861년	塔身部	8면중4면 각1구	전남 곡성	마모심함
26	雙峯寺澈鑑禪師塔	868년	塔身部	8면중4면 각1구	전남 화순	圖30-2
27	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	861~893	塔身部	8면중4면 각1구	전북 남원	圖30-3
28	寶林寺普照禪師塔	880년	塔身部	8면중4면 각1구	전남 장흥	圖30-4
29	鳳岩寺智證大師塔	883년	塔身部	8면중4면 각1구	경북 문경	圖30-5
30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	893년	塔身部	8면중4면 각1구	전북 남원	마모심함
31	鶯谷寺東浮屠	9~10세기	塔身部	8면중4면 각1구	전남 구례	圖30-6
32	石南寺浮屠	9~10세기	塔身部	8면중 2구	경남 울산	圖30-二天王像
33	法住寺四天王石燈	9세기	火舍石	8면중4면 각1구	충북 보은	圖31-1
34	陝川 伯岩里石燈	9세기	火舍石	8면중4면 각1구	경남 합천	圖31-2
35	陝川 清涼寺石燈	9세기	火舍石	8면중4면 각1구	경남 합천	圖31-3
36	陝川 靈岩寺址雙獅子石燈	9세기	火舍石	8면중4면 각1구	경남 합천	圖31-4
37	陝川 海印寺石燈	9세기	火舍石	8면중4면 각1구	경남 합천	마모심함
38	四天王寺彩釉天王像埴	679년경	基壇 추정	?	경북 경주	圖32- 1 現, 二天王像
39	石窟庵	751년경	연도	좌우 각2구	경북 경주	圖32-3
40	雲門寺四天王石柱	9세기	石柱	4주 각1구	경북 청도	圖32-4

1. 舍利器

사리기에는 불사리 수호의 기능과 함께 통일신라 전기부터 꾸준히 사천왕상이 표현되고 있으며, 보통 사각형 사리기 네 면에 1구씩 線刻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감은사 사리기 사천왕상과 같이 별조로 주조하여 붙인 예도 있다.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6각형 혹은 8각형의 다각형 사리기가 등장하면서 梵天, 帝釋天 등 다른 天部像과 함께 표현되기도 한다.

2. 石塔

사리기에 표현되기 시작한 사천왕상은 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석탑의 표면에서도 등장한다. 탑의 경우 중심이 되는 初層塔身の 네 면에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통일신라 후기의 중흥사지삼층석탑, 예천동본동석탑, 의성관덕동석탑과 같이 上層基壇에 표현된 사례도 있다. 또한 통일신라 후기로 갈수록 梵天·帝釋天, 仁王, 八部衆 등 天部像이나 佛·菩薩像과 함께 神衆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3. 浮屠

통일신라 9세기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팔각원당형의 부도에서는 8각의 塔身石 중 네 면에 門扉나 香爐 또는 梵天·帝釋天 등의 다른 天部像과 번갈아가며 배치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4. 石燈

석등은 삼국시대부터 등장하였으나, 현존 유물은 대부분 9세기 이후의 것으로 유행 시기는 부도와 비슷한 시기하다. 사천왕상은 팔각의 石燈 火舍石 가운데 火窓을 제외한 나머지 네 면에 표현되어 있다.

5. 기타

이밖에 四天王寺 탑의 네 벽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彩釉塑造天王像²⁰⁾과 石窟庵의 연도에 표현된 사천왕상, 현재 雲門寺鶴岬殿에 모셔진 四天王石柱 등이 있다.

20) 이 작품은 『三國遺事』 권4 義解第5 良志使錫條의 “..天王寺塔下八部神將...”이라는 구절에 의하여 八部衆像으로 보는 견해(文明大, 앞의 논문)와 四天王像으로 보는 견해(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 1968, 姜友邦, 앞의 논문)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사천왕상의 범주에 포함시켜 형식분석을 시도하였다.

IV. 統一新羅 四天王像의 표현양식

1. 中國 唐代 四天王像의 표현양식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은 唐代에 중국화된 사천왕상의 도상을 수용하여 전개되었으므로, 통일신라 사천왕상의 표현양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唐代 사천왕상의 양식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唐代에는 다양한 조형물에 걸쳐 사천왕상이 활발히 표현되었으나, 본 고에서는 敦煌·龍門·丙靈寺·鞏懸·麥積山·安西榆林 등 석굴사원에 표현된 사천왕상들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살펴보았다. 석굴사원에 표현된 사천왕상은 대부분 佛龕內에 佛·菩薩과 함께 1구를 이루며 二天王像으로 제작되었으며 盛唐 중반기(8세기 중엽)를 정점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양식을 구분할 수 있다.

〈표2〉 中國 唐代 石窟寺院에 표현된 四天王像

石窟	작품명	制作時期	備考	
敦煌莫高窟	第380窟 主室東壁 二天王像	初唐期 (618~712)	圖9	
	第322窟 西壁龕內 南·北側 二天王像		圖10	
	第331窟 二天王像		圖11	
龍門石窟	潘溪洞 南·北壁 二天王像		圖12	
	敬善寺洞 南·北壁 東側 二天王像		圖13	
	萬佛洞 前壁南側 天王像		圖14	
	老龍洞 北壁西側 二天王像		圖15	
奉先寺 南·北壁 二天王像	圖16			
麥積山石窟	第5窟龕 天王像		圖17	
炳靈寺石窟	第23·24·27·29·64窟 入口 南北壁 二天王像		圖18	
	第28窟 入口 南北壁 二天王像(南壁像)			
敦煌莫高窟	第319窟 西壁佛壇 二天王像		盛唐期 (712~781)	
	第384窟 西壁龕內南·北側 二天王像			
	第45窟 西壁龕內側 二天王像			圖19
	第46窟 西壁龕內北側 二天王像			圖20
	第66窟 西壁北側 二天王像			
	第194窟 西壁龕內南·北 二天王像	圖21		
炳靈寺石窟	第264窟 主室南壁龕內北壁 二天王像			
炳靈寺石窟	第168窟 南·北壁 二天王像(南壁像 殘存)	圖22		
安西榆林窟	第15窟 前室南·北壁 二天王圖	圖23		
	第25窟 前室南·北壁 二天王像	圖24		
敦煌莫高窟	第159窟 主室 西壁龕內 南·北側 二天王像	中唐期 (781~848)	圖25	
	第205窟 佛壇 上部 天王像		圖26	
敦煌莫高窟	第18窟 西壁龕內南·北側 二天王像	晚唐期 (848~902)	圖27	

가. 唐代 前期 (唐 高宗~玄宗)

전기는 初唐期(618~712년)와 盛唐 중반기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초당기는 인도 굽타양식의 영향으로 사실주의 기법이 유입된 시기로 잘록한 허리에 신체비례가 뛰어난 우수한 사천왕상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중국 사천왕상의 전형 양식이 정립된 시기이다.

(1) 머리형식

唐代 이전에는 넓은 삼면보관을 쓴 형식이 성행하다가 隋代末부터 보관의 폭이 점차 좁아진다. 좁은 보관을 착용한 예로는 용문석굴 잠계동 천왕상(圖12)을 들 수 있으며, 初唐 전반기의 돈황 제380굴과 제322굴 천왕상(圖9·10)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둥근형태의 서역식 투구(圖33)를 쓰고 있다. 그러나 초당기에 확립되어 唐代 전기에 가장 유행한 머리형식은 상투형이다.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투형의 머리는 이후 중국화된 사천왕상의 전형적인 머리형식으로 계속 유행하게 된다.

(2) 갑의

初唐 전반기에는 돈황 막고굴 제322굴 二天王像(圖10)와 같이 단순한 구성의 코트형 갑의를 착용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위·아래로 一條의 선이 있는 코트형 갑옷은 쇼르축 출토 병사입상(圖33)이나 키질석굴 제205굴 爭分舍利圖의 武士像과 같은 석굴에 표현된 쿠차供養人像의 갑의와 유사한 형식의 서역풍 갑의이다. 그러나 唐代 전기에 본격적으로 유행한 갑의는 단순한 구조의 서역풍 갑의와 달리 明光鎧에 신체 각 부분을 덮는 갑을 따로 제작하여 紐나 帶로 묶는 다수로 이루어진 갑의이다.

(3) 대좌

唐代에 접어들어 보살형 이미지의 사천왕상이 사라지면서 연화좌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또한 初唐期에는 소를 밝고 있는 맥적산 제5굴 천왕상(圖17)과 같이 獸座를 밝고 있는 사례도 있다. 소는 고대에 신으로 여겨져 부처와 보살의 덕으로 비유되기도 하였으며, 『玉堂閒話』에는 「金蹄銀角犢兒」라 하여 소를 귀히 여겼다고 한다.²¹⁾ 이처럼 연화좌에서 동물좌 그리고 일그러진 표정의

21) 『中國美術全集』 彫塑編8 麥積山石窟彫塑, 1993, p.52.

악귀좌(야차)로의 대좌의 변천은 사천왕의 분노의 형상에 걸맞게 변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악귀좌가 유행하기 이전 일시적으로 나타난 동물좌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병령사석굴 제29감 천왕상(圖 18-②)과 같이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半獸半人의 대좌를 밟고 있는 특이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동물을 밟기도 하지만, 唐代 전기에 가장 유행한 대좌는 惡鬼座이다. 보통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를 밟거나 깔고 앉아 있는데, 악귀좌라는 명명은 단지 기괴스러운 형상에서 기인한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악귀가 아니라 수미산의 中腹에서 활약하고 있는 夜叉神이다. 즉 사천왕의 하단에 야차신들의 城樓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천왕의 발밑에 표현된 야차신은 사악한 무리를 무찌르기 위해 사천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²²⁾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유행한 악귀좌는 혀를 내밀거나 울상을 짓는 등 해학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4) 자세

唐代 전기에는 한쪽 손은 허리에 대고 다른 손은 위로 치켜 든 채 한 쪽 다리도 들어 올린 역동적인 자세의 상이 유행한다. 이때 몸매는 역동적인 자세와 부합되어 가슴은 당당한 근육질에 허리는 잘록하게 표현된다. 이처럼 역동적인 자세는 부릅뜬 눈의 분노형 얼굴과 부합되어 한층 호법신으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나. 唐代 後期 (唐 肅宗~唐末)

(1) 머리형식

唐代 후기에는 여전히 상투형이 유행하나, 이 시기에는 護耳形 투구를 쓴 상과 높은 보관을 쓴 상이 새로이 등장한다. 호이형 투구는 귀 양옆부분으로 돌기모양이 튀어나온 투구로, 그 頂部에 장식을 하기도 한다. 唐代 사천왕상은 前述했다시피 대부분이 二天王像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호이형 투구를 쓴 경우 나머지 천왕상은 상투형 혹은 높은 보관을 쓴 형식으로 두 천왕상의 머리형식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2) 『魅惑の佛像-四天王』, 2000. 12, 毎日新聞社, p.40~41, 그러나 본고에서는 '야차좌'를 통상대로 '惡鬼座'로 지칭하고자 한다.

또한 높은 보관을 쓰고 있는 경우는 호이형 투구를 쓴 상과 대칭적으로 많이 표현되며, 中唐期 이후 兜跋毘沙門天信仰이 유행하면서 독립적으로 높은 보관을 쓴 상도 표현된다.

(2) 갑의

갑의 형식은 대체로 唐代 전기의 양식을 계승하지만, 후기가 되면 앞시기에 비해 요갑 밑의 다리 사이로 군의 자락이 길게 흘러 내려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圖21·25·27) 또한 어깨 위에 肩布를 두른 상도 새로이 표현되는데(圖23-①, 圖26), 肩布는 肩當에 해당되는 부분에 布製를 둘러싼 것이라는 것²³⁾과 장식적인 역할²⁴⁾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또한 吐蕃에서는 무인의 어깨위에 大虫皮라고 하는 虎皮를 두르는데, 戰功이 있던 자가 사망하면 生前에 착용하던 皮를 旌旗해서 용감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었다고 한다.²⁵⁾ 이와같은 사실을 唐 후기에 막 접어든 大歷11년(776)에서 建中2년(781)경에 吐蕃의 침략을 받았던 당시 시대적·민족적 특징을 고려해 보면, 사천왕상에 표현된 肩布를 吐蕃적 요소가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中唐期 이후 유행한 兜跋毘沙門天像은 가슴 위 중앙에서 시작하여 뒷목을 감싸는 높은 頸護에 우측 여밈의 긴 코드형 長身甲을 착용하고 있다.(圖35) 이는 6~7세기 서역의 키질 및 쿵드라의 신장상과 같은 형식으로, 두발 비사문천상의 기원이 서역에서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키질 및 쿵드라를 경유한 서방에서 전래된 앞여밈의 개갑을 입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²⁶⁾

이처럼 어깨위에 肩布를 두르거나 長身甲을 착용하는 것은 中唐期 이후 당나라 통치계급의 부패와 ‘安史의 난’으로 인하여 국력이 쇠퇴해진 틈을 타서 吐蕃등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대좌

唐代 후기가 되면 악귀좌도 유행하나 점차 그 표현이 퇴화되다가 岩座로 대체되며, 간혹 대좌를 따로 표현하지 않은 無臺座의 상(圖26)도 눈에 띈다.

(4) 자세

23) 石田茂作, 『佛像のよろい』, 『佛教考古學論叢』 2, 思文閣出版, 1977, p.101.

24) 逸見梅榮, 『佛像の形式』, 東出版, 1970, pp.364~365.

25)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IV, p.173.

26) 松本榮一, 『敦煌畫 研究』, 同朋舍出版, 1985, pp.417~463.

唐代 후기에 들어서면 돈황 제194굴 西壁龕內南·北 二天王像과 같이 살집이 풍만한 비대한 체구의 상이 등장한다. 얼굴은 여전히 분노형을 띠고 있으나 비대해진 몸집 탓인지 가만히 서있는 정적인 자세에서 손에만 약간의 움직임 주고 있어 전기에 비해 역동성이 많이 반감되고 있다.(圖21·25·27) 한편 높은 보관을 쓰고 장신갑을 착용한 채 보탑을 들고 있는 毘沙門天像(圖23-②·35)은 가만히 선 정적인 자세이지만 잘록한 허리에 날렵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때 지물로는 右手에는 창, 左手에는 寶塔을 들고 다리 사이에는 밑에 地神이 표현되어 있다.(圖35)

2. 統一新羅 四天王像의 표현양식

가. 통일신라 사천왕상의 표현양식

(1) 머리형식

형식적인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머리형식은 크게 상투형, 보관형, 투구형으로 구분하였다. 상투형은 7세기후반의 感恩寺東·西塔舍利函 사천왕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圖28-①,②) 감은사 사천왕상은 唐代 전기에 유행하던 머리칼을 완전히 위로 틀어 올린 형식과는 달리 머리칼이 어깨위로 내려오거나, 상투 좌·우로 갈퀴처럼 돌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후 상투형은 통일신라 전시기에 걸쳐 유행하지만, 특히 전기에 유행하며 후기의 경우 석탑에 많이 나타난다. 한편, 佛國寺釋迦塔金銅舍利盒의 제1천왕상(圖28-④)은 돈황 제380굴과 제322굴 천왕상(圖9·10)과 같은 서역풍의 목까지 내려오는 긴 형태의 투구를 쓰고 있다.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唐代 후기에 유행하던 護耳形 투구를 쓴 상이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9세기대부터 새롭게 등장한 부도의 사천왕상은 대부분 호이형 투구를 쓰고 있어, 양식적인 선진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한편 보관형을 한 예로는 7세기 후반의 四天王寺址菜油天王像의 제2천왕상(圖32-①)과 8세기 중엽의 불국사석가탑사리합 제2천왕상(圖28-②)이 있는데, 모두 初唐期에 유행한 작은 삼면보관을 쓰고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 후기의 雙峯寺澈鑑禪師塔 다문천왕상(圖30-②)은 우뚝 솟은 높은 보관을 쓰고 있는데,

〈표 3〉 통일신라 사천왕상의 형식분석

구분 번호	사천왕상 表現 造形物	年代	머리형식			甲衣					天衣					臺座				
			상투	보관	뚜구	圓頭		箭尾	前當	肩布	袂	頭部	腰部		臺座	소대	순	獸座	惡鬼	岩座
						披膊	護甲						上	下						
1	感恩寺西塔舍利函	682년경	○			○ (西)	○	○			○		○					○ (東)	○ (北)	
2	感恩寺東塔舍利函	682년경	○			○ (西·北)	○	○			○		○					○ (北)	○ (東·南·西)	
3	感恩寺東塔圓形舍利函	682년경	○				○	○					○							
4	佛國寺釋迦舍利盒	751년경		○ 제1	○ 제2															○
6	慶州 東川洞出土舍利盒	888년		○									○							○
7	桃李寺舍利函	9세기	○				○ (北)		○ (南)				○							○
8	皇龍寺舍利函	872년경		○			○								○					
9	羅原里五層石塔舍利盒	9세기	○				○			○	○	○	○							○
10	華嚴寺獅子二層石塔	8세기 중반	○							○ (東·北)		○		○						○
11	遠願寺東二層石塔	8세기 후반	○			○ (東)		○ (西)			○	○	○						○	
12	遠願寺西二層石塔	8세기 후반	○			○ (東)		○ (西)			○	○	○						○	
13	慶州釋迦塔身	9세기	○							○		○	○						○	
14	慶州釋迦塔身	9세기	○					○ (南)		○	○	○	○						○	
15	皇龍寺西塔身	9세기		○				○ (西)		○		○	○							
16	實相寺百丈臺二層石塔	9세기	○							○ (西·北)		○							○	
17	中興寺二層石塔	9세기	○		?				○ (東)										○	
18	僧城谷寺二層石塔	9세기	○							○		○	○							○
19	英陽 縣一洞二層石塔	9세기	?	○						○		○	○						○	
20	義城 觀德二層石塔	9세기	○	○						○		○	○							○
21	英陽 化川洞二層石塔	9세기	○	○						○	○	○	○						○	
23	華嚴寺西五層石塔	9세기		○						○		○	○	○					○	
24	麻居和尙塔	844년	○	○				○ (北)		○		○	○	○						○
26	雙峯寺迦盧禪師塔	888년		○ (北)	○				○	○	○	○	○	○						○
27	實相寺迦盧大師塔	871~880		○					○ (南)		○	○	○	○	○					
28	寶林寺普照禪師塔	880년		○					○ (北)				○	○	○					○
29	鳳岩寺智證大師塔	883년		○						○ (北)		○	○	○	○					○
31	鶯谷寺東浮屠	9~10세기		○					○	○	○	○	○	○	○					○
32	石南寺浮屠	9~10세기		○					○	○	○	○	○	○	○					○
33	法住寺四天王石燈	9세기		○				○	○ (東)		○	○	○						○	
34	陝川 伯岩里石燈	9세기	○							○		○	○						○	
35	陝川 清涼寺石燈	9세기		○					○ (東)		○	○	○ (東·南)							○
36	陝川 靈岩寺迦盧禪師石燈	9세기		○					○										○	
38	四天王寺彩繪天王像塔	678년		○ 제1	○		○	○												○
39	石窟庵	751년경	○									○	○							○
40	雲門寺四天王石柱	9세기	○						○ (南)		○	○								

이러한 보관형식은 唐代 후기 兜跋毘沙門天像의 머리 형식과 같은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毘沙門天像만을 단독으로 제작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毘沙門天信仰 또한 유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신앙과는 별개로 圖像은 유입되어 사천왕상 중 북방 다문천왕상에 표현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이형 투구를 쓴 경우 네 상 모두 동일하게 투구를 쓴 경우가 대부분이나, 唐代 후기 이천왕상의 머리가 각기 다르게 표현된 것과 같이 투구형과 상투형이 같이 표현된 사례도 간혹 있다.

(2) 두광

頭光은 동일 작품내에서도 표현 有無가 들쭉날쭉하며, 통일신라 사천왕상의 대부분이 석조물에 부조된 형식인 점을 감안하면 부조된 정도가 아주 얇은 경우에는 그 식별이 힘들다. 이처럼 형식적 특징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두광의 표현으로 통일신라 전기와 후기의 구별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9세기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羅原里五層石塔金銅舍利盒 사천왕상(圖28-⑧)과 872년경의 皇龍寺舍利函 이천왕상(圖28-⑦)은 두광 주위로 화염형 돌기가 표현된 이른바 ‘火焰形 頭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염형 두광은 중국의 경우 9세기 이후 회화로 표현된 사천왕상 가운데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어 통일신라 후기 사천왕상의 형식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화염형 두광은 이후 고려시대 寫經畫의 신장상에 꾸준히 표현·계승되고 있다.(圖36)

(3) 갑의

갑의는 평상복 위에 방어용으로 착용한 것으로, 육안으로 드러나는 요소만을 열거하면 上衣에는 ‘披膊’아래로 불룩한 소매자락이 드러나 있다. 소매는 ‘半袖’의 형태로 그 끝은 불룩하게 묶여 있는데, 소매 끝단에 주름이 촘촘히 잡힌 것은 ‘鱗袖’라고 한다. 下衣에는 ‘腰甲’안에 ‘表袴’와 ‘裙衣’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표고는 정강이부분에서 불룩하게 묶여져 있으며 무릎 밑으로 내려온 裙衣는 보통 양다리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밖에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은 목에는 대부분 ‘S’자형 ‘頸護’를 두르고, 양어깨에는 주로 小札의 披膊으로 감싸고 있는데, 통일신라 전기 사천왕상 중에는 披膊에 ‘獸頭’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한편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어깨 위에 中唐期 이후에 유행한 ‘肩布’로 여겨지는 것을 두른 상도 확인된다. 半袖밑으로 드러난 팔의 下膊은 小札의 ‘腕當’으로 보호하며, 가슴부분은 ‘胸甲’과 ‘胴

着'을 착용하고 있다. 통일신라 전기 작품 중에는 腹部 중앙에 '獸頭'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허리에는 굵게 꼬은 형식의 '腰帶'를 하고, 하반신에는 札甲의 腰甲을 입고 있다. 이때 요갑의 끝은 마치 레이스와 같은 끝단이 표현되어 있다. 통일신라 전기에는 腰帶 바로 밑에는 넓직한 앞 모양의 '鵝尾'가 표현되거나, 腰甲 중앙에는 장방형 '前當'을 내려뜨린 예도 있다. 정강이에는 팔에 腕當을 착용한 것처럼 '脛護'를 두르고 있다. 발에는 신을 신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표현이 소략하거나 마멸되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일신라 전기의 四天王寺址茶油天王像이나 石窟庵四天王像과 같이 서역풍의 샌들을 신고 있는 예도 있다.

이처럼 통일신라 사천왕상은 기본적으로 頸護, 披膊, 胸甲, 胴着, 腰帶, 腰甲, 表袴 등 신체의 각부를 보호하는 다수의 갑옷으로 이루어진 중국 唐代 사천왕상의 갑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갑의의 구성요소 중 시기성이 드러나는 披膊·腹甲의 獸頭장식, 鵝尾, 前當, 絹布, 袂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표 3>, 披膊과 腹甲에 獸頭장식이 표현된 것은 통일신라 전기 사천왕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요갑 밑의 鵝尾나 前當은 통일신라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통일신라 후기에는 대체적으로 전기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으나, 唐代 후기와 같이 앞 시기에 비해 군의 자락이 다리 사이로 길게 흘러내리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어깨 위에 肩布를 걸치거나 축 쳐진 소매자락인 袂²⁷⁾ 등 또한 통일신라 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천의

천의란 천상계의 옷으로 중량감 없이 휘날리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사천왕상을 비롯한 불교의 모든 天部像은 천의를 걸치고 있다. 천의는 皇龍寺舍利外函 이천왕상(圖28-⑦)이 두른 솔형대의 것처럼 신체에 따로 걸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상투형의 머리 좌우로 휘날리는 띠자락이나 腰帶와 군의의 띠자락 등이 신체 주위로 휘날리는 모습은 마치 천의와 흡사하며 그 생동감 있는 표현은 역동적인 사천왕상의 이미지를 더욱 부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27) 밑으로 축 늘어진 소매 즉 '袂'는 본디 武服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소매 밑의 주머니같이 늘어진 부분을 칭하는 것에서 소매의 뜻으로 되었다. 이 袂는 半臂에 흔히 달려 있는 上衣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唐의 인물도우나 용문 제3굴(빈양동) 東壁 南方供養像 등에 보이고 일본 藥師寺 吉祥天에도 袂가 길게 늘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袂는 人物俑 供養像, 菩薩像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복식의 일부를 이루는 보편적인 형식이다.(姜友邦, 『統一新羅 十二支像의 양식적 고찰』, 『원융과 조화』, 1990, p.365.)

신체에 부속된 띠자락을 천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천의가 표현된 신체의 부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표3>에서는 전형적인 솔형 천의를 비롯한 상투형의 머리띠 자락과 주변에서 훑날리는 것, 어깨 주위, 요대 띠자락이 위아래로 훑날리는 것, 군의의 자락이 다리 밑으로 흘러 내려오다가 마치 대좌처럼 발 밑 좌우로 흐르는 것, 길게 늘어진 띠의 끝자락이 반전하여 올라간 것 등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頭部와 腰部주위에서 훑날리는 天衣는 통일신라 전 시기의 사천왕상 대부분에 해당된 반면, 肩部주위와 군의의 띠자락이 대좌처럼 밑으로 훑날리는 것과 띠의 자락이 훑날리는 것 등은 모두 통일신라 후기 이후의 작품에서만 표현되고 있었다. 이처럼 천의의 표현은 통일신라 후기로 가면서 점차 번잡해지고 표현상 도식화되어 가며, 이러한 특징은 부조의 정도가 알아 회화적 표현이 다소 용이한 부도의 사천왕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5) 持物

<표4>는 지물의 식별이 가능한 통일신라 사천왕상 만을 대상으로 한 지물분석 표이다. 아울러 이 내용을 토대로 <표5>에서는 각 천왕별 지물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통일신라 사천왕상은 북방 다문천왕이 寶塔을 든 것을 제외하면 지물로서 각 상의 존명을 구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물 중에서는 칼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사천왕 중에는 지국천왕이 칼을 든 사례가 가장 많다. 이밖에 지국천왕은 창과 금강저, 권법자세를 취한 경우가 각 3예씩 있다. 증장천왕 또한 지물 중에서는 칼을 든 예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金剛杵²⁸⁾ 7예, 索 3예, 寶珠²⁹⁾ · 창이 2예, 寶瓶 · 棒 · 弓矢 · 권법자세가 각 1예씩으로 가

28) 杵는 인도 고대의 무기 가운데 하나로, 제석천이 이수라와 싸울 때 코끼리를 타고 금강저를 무기로 삼아 이수라의 무리를 쳐부순다고 한 신화에서 그 신비한 힘이 유래되었으며, 인도의 여러 신과 力士들이 이 무기로써 적을 항복시킨다고 한다. 후에 밀교에서는 적을 쳐부수는 의미로 이 무기를 佛具로 채용하여 여러 존상의 持物로 사용되었다. 형태는 손잡이 양쪽이 뾰족한 獨鈷杵와 양끝이 갈라진 수에 따라 2鈷杵·3鈷杵·4鈷杵·5鈷杵·9鈷杵 등이 있다. 최초에는 그 형태가 일종의 무기형으로 뾰족하고 예리하였으나 불구로 사용되면서 끝의 여러 가닥이 모아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들 중 독고가 가장 오래된 형식이며, 손잡이 좌우에 불꽃문양 형태를 조각한 경우 이를 寶杵라고 하고, 탑을 조각한 것은 塔杵라고 한다. 이들은 2고·3고의 금강저와 함께 밀교의 壇에 배치된다.

29) 여의주, 또는 여의보주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욕구하는 바를 성취시킨다고 한다. 밀교에서는 摩尼라고도 하는데 용왕의 뇌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 구슬을 가지면 독이 해칠수 없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공덕이 있다고 한다. 혹은 제석천왕이 이수라와 싸울 때 부서져

장 다양한 지물 및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광목천왕은 칼 11예, 금강저 6예, 창이 5예, 索 2예, 寶珠가 1예이며, 다문천왕은 보탑이 27예로 가장 많다. 특히 보탑을 든 손은 통일신라 전기에는 右手가 4예, 左手가 1예이다가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右手 6예, 左手가 15예로 후기로 갈수록 左手에 보탑을 든 사례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다문천왕은 칼이나 창을 들고 있기도 한데, 특히 9세기이후 부도에 표현된 다문천왕은 한손에는 寶塔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 또는 창을 든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사천왕상이 들고 있는 지물은 경전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경전에서 사천왕의 지물을 언급한 내용은 <표6>과 같다. 사천왕 중 방위 식별 및 지물에 의한 시기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북방 다문천왕이 寶塔을 들고 있다는 점을 경전의 내용과 결부시켜 보면, 7세기대에 한역된 『陀羅尼集經』만이 오른손에 보탑을 들고 있고 나머지 경전에서는 모두 왼손에 보탑을 들고 있다. 그러나 『秘藏記末』을 제외하면 모두 8세기 중반 이전에 한역된 경전들로, 『陀羅尼集經』을 제외한 나머지 경전과의 관련성은 그다지 찾을 수 없다. 『陀羅尼集經』은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의 대부분이 들고 있는 무기류의 지물과도 대체적으로 부합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신라 전기 사천왕상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陀羅尼集經』이외의 밀교계 경전의 영향 등도 수용하여 보탑을 든 손이 왼손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도 하며 또는 지나간 세상의 모든 부처님의 사리가 불법이 멸할 때에 모두 변하여 이 구슬이 되어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도 한다.(龍夏著, 『佛敎辭典』, 동국역경원, 1991)

〈丑4〉 新羅時代 四天王像 持物

구분 종류	四天王像 表現 造形物	年代	四天王像	持物	
				左手	右手
舍利器	感恩寺西塔舍利函	682년경	持國天王	創	
			增長天王	寶珠	
			廣目天王		獨鈷杵
			多聞天王		寶塔
	感恩寺東塔舍利函	682년경	持國天王	獨鈷杵	
			增長天王		寶劍
			廣目天王		創
			多聞天王		寶塔
	感恩寺東塔殿閣形舍利函	682년경	持國天王	寶劍	
			增長天王	獨鈷杵	創
佛國寺釋迦塔舍利盒	751년경	廣目天王		寶塔	
		多聞天王	寶劍		
慶州 東川洞出土舍利盒	828년	持國天王	寶劍		
		增長天王	?	棒	
桃李寺舍利函	9세기	廣目天王	創		
		多聞天王	(缺失)	寶塔	
		持國天王	寶劍		
皇龍寺舍利內函	872년경	增長天王	創		
		廣目天王	獨鈷杵		
羅原里五層石塔舍利盒	9세기	多聞天王		寶塔	
		第1天王		寶劍	
		第2天王	寶劍(평행)		
		持國天王	寶劍		
石塔	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	8세기중반	持國天王	拳法姿勢	
			增長天王	寶劍	
			廣目天王	獨鈷杵	
			多聞天王	寶塔	
	遠顛寺東三層石塔	8세기후반	持國天王	寶劍	
			增長天王	(缺失)	
			廣目天王	三鈷杵	
	遠顛寺西三層石塔	8세기후반	多聞天王		寶塔
			持國天王	寶劍	
	慶州博物館1塔身	9세기	增長天王	(缺失)	
廣目天王			獨鈷杵		
多聞天王			寶塔	寶珠	
慶州博物館2塔身	9세기	持國天王	寶劍		
		增長天王		索	
		廣目天王	(缺失)		
皇龍寺西寺址塔身	9세기	多聞天王		寶塔	
		持國天王		寶劍	
		增長天王		寶劍	
		廣目天王	寶劍	寶劍	
			三鈷杵		
			寶劍		

기 타	四天王寺彩釉天王像塼	679년경	第1天王	寶劍	
			第2天王	弓矢	
	石窟庵	751년경	持國天王	寶劍	
			增長天王	寶劍	
			廣目天王	寶劍	
			多聞天王		寶塔
	雲門寺四天王石柱	9세기	持國天王	寶劍	
			增長天王		三鈷杵
			廣目天王	寶珠	
		多聞天王	寶塔		

〈표5〉 統一新羅 四天王別 持物 現況

持物 \ 天王	東方 持國天王	南方 增長天王	西方 廣目天王	北方 多聞天王	合計
寶劍	23	12	11	2	49
劍	3	2	5	4	14
金剛杵	3	7	6		16
寶珠		2	1	1	4
寶塔				27	27
寶瓶		1			1
棒		1			1
弓矢		1			1
索		3	2	1	5
拳法姿勢	3	1			4

〈표6〉 經典에 표현된 四天王의 持物

經軌	譯年 / 譯者	持國天王		增長天王		廣目天王		多聞天王	
		左手	右手	左手	右手	左手	右手	左手	右手
陀羅尼集經11	653~654 (唐)阿地瞿多	申臂垂下 把刀	屈臂向前 仰手掌中 著寶	申臂垂下 把刀	執稍稍根 著地	申臂垂下唯 執稍異	中而把 赤索	申臂垂下 執稍拄地	屈肘擎 於佛塔
不空絹索陀羅尼自在 王呪經	693(唐) 寶思惟	以手執劍		以手執楯		手執持弓箭		執持器仗	
千手觀音造次第法儀軌	637~735(唐) 善無畏	執 如意寶	刀	執杵	.	執杵	把金索	持寶塔	杵
一字佛頂輪王經1	705(唐) 菩提流志	執槩	側揚掌	執槩	揚掌	執槩	金剛杵	執槩	金剛杵
不空絹索神變眞言經3	707~709(唐) 菩提流志	把槩	揚掌	執槩	揚掌	持槩	掌獨股 金剛杵	執槩	把獨股 金剛杵
阿訶薄俱元帥大將上 佛陀羅尼經修行儀軌	717~735(唐) 善無畏	執刀按之		執叉		按劍		執杵	
金剛智口訣 (普賢延命法)	723~726(唐) 金剛智	五指	執刀橫胸	.	.	持刀索 (惑不持之)	.	持寶塔	執 三股戟
般若守護十六善神王形體	726~736(唐) 金剛智	捧鉢	大刀	押腰	跋折羅	筆		捧全身舍 利寶塔	金剛楯
法華曼荼羅成漸絕法經 (興然圖像集5參照)	746~774(唐) 不空	定執利鉢	惠善腰相	定拳押 膝	惠金剛 劍	定拔折羅	惠持羅索	定捧寶塔	惠持 寶劍
秘藏記末	9세기	持鉢		持利劍		三股鉢		持塔	持棒

(6) 臺座

통일신라 사천왕상의 대좌 형식은 크게 獸座, 惡鬼座, 岩座 그리고 아무것도 밟지 않은 無臺座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유행하던 蓮華座는 남원출토 사리기(圖34)를 제외하면 발견되지 않아 형식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獸座를 밟고 있는 상으로는 感恩寺西塔舍利函의 持國天王(圖28-①)과 東塔舍利函의 多聞天王(圖28-②)이 있다. 獸座는 唐代 전기 중 이른 시기에 간헐적으로 표현되었으며, 통일신라에서도 전기에 두 예만이 남아있어 주목되는 바이다. 한편 惡鬼(夜叉)座는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유행한 대좌형식으로, 특히 전기에는 대부분이 악귀좌이다. 통일신라 전기에는 唐代 전기와 같이 쩡그리거나 울상을 짓는 등 풍부한 표정에 자세도 허리나 두 손으로 사천왕의 발을 받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통일신라 후기로 접어들면 악귀좌의 표정은 점차 딱딱해지고 자세도 모두 엷드린 자세로 정형화되어 간다. 다음으로, 岩座는 8세기 중반 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 사천왕상(圖29-①)을 시발로 통일신라 후기 부도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다. 통일신라 후기에는 암좌에서 심지어 대좌의 표현을 생략한 無臺座로까지 약화되어 표현되어 지기도 한다.

(7) 자세

통일신라 사천왕상은 대부분이 입상이며, 자세는 7세기후반 感恩寺東·西塔舍利函 四天王像 사천왕상을 시발로 하여 분노형 얼굴에 한쪽 손과 다리를 든 역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자세는 통일신라 전시기를 통틀어 계속 유행하지만 중국의 예와 같이 특히 전기에 많이 제작된다.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양발을 대칭으로 벌린 채 서 있는 정적인 자세의 상이 새로이 유행하는데, 이 경우 보통 지물은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통일신라 후기에는 앞 시기에 비해 신체에 살집이 풍부한 비대한 모습의 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唐代 후기와 같은 양상으로 특히 부도에 표현된 사천왕상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나며 그밖에 化川洞三層石塔·華嚴寺西五層石塔·桃李寺舍利函·皇龍寺舍利內函·羅原里金銅舍利盒·靈巖寺址石燈등에서도 잘 잘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 좌상을 취한 사례도 있는데, 7세기후반 四天王寺址彩釉天王像塼과 같이 악귀위에 걸터앉은 자세를 한 것과 9세기의 傳 南原出土 舍利函 四天王像(圖34)과 같이 연화좌 위에 걸가부좌로 앉은 자세가 있다.

V. 통일신라 사천왕상의 전개양상

1. 통일신라 전기

통일신라 전기가 시작되는 7세기 후반 작품으로는 수도인 경주지역에서 제작된 感恩寺 東·西塔 舍利函 四天王像과 四天王寺址彩釉天王像博이 있다. 이 상들은 初唐期에 유행하던 굽타양식을 수용한 사실주의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특히 감은사지 사리기의 사천왕상의 유연한 三曲姿勢와 잘록한 허리,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胸部와 臀部 등에서 인도의 굽타양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감은사지 사리기의 사천왕상은 唐代 전기에 중국화된 무장형 사천왕상의 양식을 수용하여 상투형의 머리에 갑의를 착용하고 獸座 혹은 惡鬼座를 밟고 있으며, 한쪽 손은 허리에 대고 다른 손에는 지물을 든 채 다리는 들어올리거나 둔부를 쭉 내민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圖28-①,②) 사천왕사지의 천왕상은 두 마리 악귀좌 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현재 二天王만이 남아 있으며 앞의 감은사지 사리기 사천왕상과 함께 서역적인 용모에 노출된 팔과 다리, 惡鬼의 울퉁불퉁한 근육표현 등에서 사실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圖32-①) 양지스님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8세기 중반이 되면 불국사석가탑사리함과 석굴암,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등에서 각각 사천왕상이 표현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앞의 두 작품은 경주지역에서,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사천왕상만이 전라도지역에서 제작된 것이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佛國寺釋迦塔舍利盒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二天王像(圖28-④)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隋末唐初의 돈황 제380굴 이천왕상(圖9)과 같이 제1천왕상은 좁은 보관을 쓰고, 제2천왕상은 팔자형 콧수염에 서역풍의 둥근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이는 서역풍이 농후한 돈황 제322굴 천왕상(圖10)과도 유사한 표현이다. 石窟庵의 사천왕상(圖32-②)은 8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역풍의 용모에 적절한 신체비례 사실적인 표현 등이 우수하며, 특히 初唐期의 용문석굴 경선사동 천왕상(圖13)과 그 표현이 거의 흡사하다. 조형적으로 7세기 후반의 사천왕사지 천왕상 중 제2천왕상을 계승하였으며, 상반신만 무장을 한 채 하반신에 군의 및 천의자락이 흘러내려오는 점과 서역풍의 샌들을 착용한 점이 특히 유사하다. 한편 같은 시기 전라도지역에서 제작된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의 사천왕상(圖29-①)은 보살형 이미지의 상으로 初唐期에 성립된 분노형의 무장상 이전에 유행하던 형식으로 같은 시기 경주지역에서 제

작된 사천왕상과는 차별성을 보이며 양식적 전파가 다소 늦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일신라 전기에는 지역적으로는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사리기에 가장 먼저 사천왕상이 표현되고 있으며, 점차 석탑의 표면으로 그 표현 영역이 확장되어 간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경주지역에 신앙식이 먼저 유입되어 구 백제지역에서 해당하는 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사천왕상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2. 통일신라 후기

8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遠願寺東·西三層石塔을 시발로 하여 石塔의 장엄조식으로 四天王像이 활발하게 표현되고 있다.(圖29-②,③) 원원사의 사천왕상은 감은사 사천왕상과 석굴암 사천왕상 등의 통일신라 전기 사실주의 기법의 계통을 잇는 상으로 唐代 전기에 유행한 상투형 머리에 갑의, 다채로운 표정의 악귀좌를 밟고 있다. 한편 머리와 허리부근에서 훑날리는 천의는 역동성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부조의 정도도 원각에 가까울 정도의 고부조로 표현되어 있다.

9세기대가 되면 통일신라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한 조형물에 사천왕상이 활발히 표현되고 있다. 우선 사리기부터 살펴보면 828년경의 경주 東川洞出土舍利函의 사천왕상(圖28-⑤)은 8세기 중반경의 불국사석가탑사리합 제1천왕상의 등근 서역풍 투구와는 달리 唐代 후기에 유행하던 護耳形 투구를 쓰고, 좌우 대칭형의 자세에 두 손으로 가지런히 지물을 들고 있다. 桃李寺舍利函의 사천왕상(圖28-⑥) 역시 唐代 후기의 양식이 반영되어 사천왕의 몸집이 확연히 비대해지고, 다리 사이로 균의 자락 및 천의자락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다. 또한 증장천왕은 어깨 위에 唐代 후기의 吐蕃적 요소로 파악된 肩布를 걸치고 있다. 872년경의 皇龍寺舍利內函에 표현된 이천왕상(圖28-⑦)과 역시 9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되는 羅原里金銅舍利函의 사천왕상(圖28-⑧) 역시 통일신라 전기에 비해 비대해진 신체에 화염형 광배가 표현되어 있다. 더욱이 나원리사리합 사천왕상은 천의가 신체의 곳곳에서 여러 가닥으로 번잡하게 훑날리게 표현되어 있어 통일신라 후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나원리사리합 사천왕상의 경우, 기존의 나원리오층석탑³⁰⁾의 편년에 맞춰 8세기 초기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대해진 신체의 표현과 요감밑으로 흘러 내려오는 균의자락, 화염형 광배, 번잡

30) 『경주나원리오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 천의의 표현 등은 모두 唐代 후기 및 통일신라 후기의 것으로 파악된 특징적 요소로 통일신라 후기 중에서도 9세기 이후의 작품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9세기 석탑에 표현된 사천왕상으로는 9세기 전기의 慶州博物館塔身(圖29-④,⑤), 皇龍寺西寺址塔身(圖29-⑥)의 사천왕상이 있다. 이 사천왕상들은 8세기 후반 원원사 사천왕상의 계통을 있는 상으로 세부표현이 치밀하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전라도지역에서 제작된 實相寺百丈庵三層石塔의 사천왕상(圖29-⑦)은 기본적인 갑의 구조는 통일신라 전기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나, 부드러운 이미지의 얼굴은 8세기 중반경 화엄사4사자삼층석탑의 보살형 사천왕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9세기 중반경으로 추측되는 전라도 광양의 中興寺址三層石塔 사천왕상(圖29-⑧)은 전체적인 신체의 움직임이 앞 시기에 비해 역동성도 반감하고 다소 경직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된다. 상호는 실상사삼층석탑 사천왕상과는 달리 특 불거진 눈에 이마에는 주름이 표현된 분노형이며, 지국천왕은 어깨에 肩布를 두르고 있으며, 증장천왕과 광목천왕은 각기 호이형으로 보이는 투구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9세기 중반기가 되면 지방에서 제작된 석탑에서도 唐代 후기에 유행하던 신앙식들이 유입됨을 알 수 있다. 9세기 후반의 僧燒谷寺址三層石塔 사천왕상(圖29-⑨)은 정면향에 양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대칭적으로 선 부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머리모양은 상투형이지만, 요갑밑으로 균의와 천의자락이 흘러내리고 대좌의 표현이 생략되는 등 후기의 특징이 도출되고 있다. 같은 시기 英陽縣一洞三層石塔 사천왕상(圖29-⑩)은 승소곡사지삼층석탑 사천왕상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경직된 포즈이지만 광목천왕이 다리를 꼬고 선 자세나 증장천왕과 다문천왕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는 석굴암 사천왕상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후기의 특징으로는 길게 흘러내리는 균의자락 및 악귀좌가 많이 퇴화되어 마치 암좌와 같이 표현된 대좌 등을 들 수 있다. 義城觀德洞三層石塔의 사천왕상(圖29-⑪)은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 역동적인 자세는 취하고 있으나, 전기 및 8세기 중·후반기 작품에 비해 표현이 부자연스러우며 세부 표현도 소략하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英陽化川洞三層石塔 사천왕상(圖29-⑫)은 같은 영양지역의 현일동삼층석탑에 비해 후기의 특징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며, 정면향에 좌우 대칭형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체의 표현도 비대해졌으며 머리에는 호이형 투구를 쓰고 대좌로 암좌를 밟고 있으며, 천의자락도 도식화되어 좌우로 번잡하게 흘날리는 있다.

같은 시기에 전라도지역에서 제작된 華嚴寺西五層石塔 사천왕상(圖29-⑬) 역시 비대해진 신체에 호이형 투구를 쓰고 어깨 위에는 肩布를 두른 唐代 후기의 영향이 잘 드러나는 통일신라 후기의 대표적 작품이다. 이처럼 석탑에 표현된 사천왕상은 9세기 중반이후가 되면 중앙과 지방간의 양식차가 사라지며, 오히려 어깨 위에 肩布를 두른 상은 전라도지역의 중흥사지삼층석탑과 화엄사서오층석탑의 사천왕상에만 표현되고 있어, 수도인 경주에 신앙식이 먼저 유입된 통일신라 전기 및 통일신라 후기의 9세기초의 양상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일신라 후기 선종의 유행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조형물인 고승의 부도에는 돌을새김으로 표현된 석탑의 사천왕상과는 달리 같은 석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선적이고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세부 표현이 자세하고 화려한 점이 특징적이다. 사천왕상은 844년경의 廉居和尚塔(圖30-①)에서부터 가장 먼저 표현되는데, 여기에 표현된 사천왕상은 통일신라 전기에 유행하던 갑옷을 착용하고 있으나 다리 사이로는 군의자락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으며, 증장천왕과 광목천왕은 호이형 투구를 쓰고, 모두 암좌를 밟고 있다. 868년의 雙峰寺澈鑿禪師塔 사천왕상(圖30-②) 역시 네 상 모두 호이형 투구를 쓰고, 다리 사이로 천의 자락이 길게 흘러내리며 어깨에는 肩布를 두르고 암좌를 밟고 있다. 또한 다문천왕은 中唐期이후에 유행한 兜跋毘沙門天像의 도상적 요소인 높은 보관을 쓰고 우측 여밈이 있는 장신갑을 착용하였으며, 소맷자락은 밑으로 축 쳐져 있으며, 상 주의로는 천의자락이 번잡하게 표현되어 있다. 쌍봉사철감선사탑의 사천왕상은 이후 9세기 후반기의 鶯谷寺東淨屠 사천왕상(圖30-⑥)으로 이어진다. 實相寺證覺大師의 사천왕상(圖30-③)은 호이형 투구에 대좌는 밟고 있지 않다. 또한 갑옷의 표현에 있어 상반신에는 명광개가 아닌 장방형의 흉갑을 착용하고, 하반신의 요갑은 좌우로 나뉜 특이한 형식을 하고 있다. 880년의 寶林寺普照禪師塔 사천왕상(圖30-④)은 호이형 투구에 암좌를 밟고 있으며, 역시 다리 사이로 군의 띠 자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후 보림사보조선사탑의 갑의와 호이형 투구, 약간 치우친 자세는 883년 鳳岩寺智證大師塔 사천왕상(圖30-⑤)과 石南寺 이천왕상(圖30-⑦)으로 이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도에 표현된 사천왕상은 지역적으로 전라도에 6점, 경북 문경에 1점, 강원도에 1점, 경남 울산에 각 1점씩이 분포되어 있으며, 모두 수도인 경주지역을 벗어난 지방에 분포되어 있음이 특징적이다. 또한 中唐期 兜跋毘沙門天의 도상적 수용과 실상사증각대사탑 사천왕상의 특이한 갑의의 형식은 다른 조형물에 표현된 사천왕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9세기에 들어서도 통일신라 전기 양식이 일

부 남아있는 석탑의 사천왕상에 비해 唐代 후기에 유행하던 도상적 특징이 바로 유입되어 신앙식이 가장 잘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도 중앙보다 전라도라는 지방에서 더 활발하게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도와 함께 9세기대에 본격적으로 유행한 석등에 표현된 사천왕상은 충북 보은에 1점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경남 합천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法住寺石燈 사천왕상(圖31-①)은 통일신라 전기에 유행하던 역동적 자세에 악귀좌를 밟고 있지만, 머리에는 호이형 투구를 쓰고 지국천왕은 어깨에 肩布를 두르고 있다. 합천 伯岩里石燈의 사천왕상(圖31-②)은 머리는 상투형 이지만, 비대해진 신체에 요갑 밑으로 군의 및 천의자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앞의 두 상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靈巖寺址石燈의 사천왕상(圖31-④)은 모두 호이형 투구를 착용하고 肩布를 두르고 있다. 淸涼寺石燈의 사천왕상(圖31-③)은 다소 입체감있게 표현된 다른 상과는 달리 평면적으로 얇게 표현되었으며, 머리에는 호이형 투구를 쓰고 지국천왕의 다리사이로는 군의자락이 흘러내리고 있으며 어깨에는 肩布를 두른 채 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석등에 표현된 사천왕상은 신체의 표현이 비대해지고 호이형 투구를 쓰고 다리사이로 군의 띠자락이 흘러내리는 점, 肩布를 걸친 상이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통일신라 후기의 특징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그 표현은 고식적인 양식을 계승한 통일신라 후기 석탑에 표현된 사천왕상과 흡사하며 같은 시기 부도에 표현된 사천왕상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통일신라 후기의 사천왕상은 전반적으로 唐代 후기의 양식적 특징을 수용하고 있지만, 표현되는 조형물과 지역별로 편차를 살필 수 있었다. 사리기에 표현된 사천왕상의 경우 통일신라 전기와 마찬가지로 후기에도 섬세한 표현으로 唐代 후기에 유행하던 신앙식이 바로 수용되어 표현되고 있었으며, 석탑은 통일신라 전기에 성립된 중국풍의 무장형 상에 후기의 특징적 요소가 조금씩 가미된 모습으로 표출되는데 특히 9세기 중·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앞 시기 수도인 경주에서 제작된 상과 지방에서 제작된 상 간의 양식적 편차가 사라지며 오히려 9세기 후반 화엄사서오층석탑 사천왕상과 같이 지방인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사천왕상이 唐代 후기의 특징을 가장 풍부하게 수용하여 표현되었다. 한편 부도와 같이 9세기대부터 유행한 석등에 표현된 사천왕상은 석탑의 사천왕상과 유사한 표현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도에 표현된 사천왕상은 통일신라 후기 사천왕상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唐代 후기에 유행하던 최신의 양식을 가장 잘 수용하여 표현되고 있었으

며, 지역적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사천왕상이 타 지역에서 제작된 사천왕상에 비해 양식적 선진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었다.

VI.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사천왕상의 제작은 사천왕신앙의 전래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삼국시대의 사천왕상 유품은 고구려의 평양 평천구역 출토 금동투조 신장상과 황룡사9층목탑지 심초석에서 출토된 금동방형 사리함의 신장상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황룡사9층목탑지 심초석에서 출토된 사리함의 신장상은 황룡사9층목탑이 백제의 장인 阿非知의 지도 하에 창건되었다는 사실과 사리함이 발견된 사리공의 구조가 백제의 傳天王寺木塔址 심초석과 같다는 점 등에서 백제계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작품은 일본 最古의 사천왕상인 法隆寺 金堂 및 玉蟲廚子 扉繪의 사천왕상과 그 표현양식이 흡사한데, 일본의 불교가 백제로부터 수용되었다는 점과 飛鳥時代 법륜사의 불상, 각종 금속공예품 및 기와류에 백제의 영향이 농후한 점 등을 연관시켜 볼 때 이 작품이 백제계일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되어 진다.

이후 사천왕상은 삼국통일을 즈음하여 호국적 염원이 팽배하던 시대적인 상황에 부응하여 활발히 제작되기 시작하는데, 도상적으로는 중국 唐代에 정립된 중국풍의 분노형 무장상을 수용하였다.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은 舍利器·石塔·浮屠·石燈 등에 40여점이 파악되고 있으며, 통일신라 전기에는 舍利器를 필두로 하여 石塔에 표현되기 시작하다가 후기가 되면 舍利器와 石塔을 비롯하여 浮屠와 石燈 등에도 표현되어 진다. 지역적으로는 통일신라 전기에는 수도인 경주를 중심이던 제작되던 것이 후기가 되면 전지역으로 확산되며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부도의 사천왕상은 양식적으로 가장 뛰어나며, 통일신라 후기 사천왕상을 대표하게 된다. 통일신라 전기에는 盛唐 중반기(8세기 중반)를 기점으로 한 唐代 前期에 유행하던 사천왕상인 날렵한 몸매에 한쪽 손은 허리에 대고 다른 손은 위로 치켜든 채 한쪽 발을 들어올린 역동적인 자세를 취한 채, 머리는 상투형을 하고 갑의는 明光鎧의 다수로 구성된 형식에 臺座로는 惡鬼座를 밟고 있는 모습이 유행한다.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전기의 양식을 계승하지만 唐代 後期에 유행하던 새로운 양식이 유입된다. 즉, 전기에 비해 신체의 표현이 비대해

지며 자세도 그에 걸맞게 정적으로 변하며, 머리에는 護耳形 투구를 쓴 상이 유행하며 中唐期에 유행하던 높은 보관을 쓴 상도 등장한다. 갑의 중에서는 전기에 비해 腰甲 밑으로 裙衣자락 및 천의자락이 다리 사이로 길게 흘러내리고, 唐代 후기에 유입된 吐蕃적 요소인 어깨에 肩布를 두르거나, 우측 여밈의 長身甲을 착용한 상도 새롭게 등장한다. 대좌는 전기에 유행하던 악귀좌가 여전히 표현되나 악귀에서 퇴화된 岩座 혹은 대좌를 밟지않은 無臺座도 표현된다. 이처럼 통일신라의 사천왕상은 전반적으로 唐代 사천왕상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나, 二天王像으로 제작된 중국 唐代 천왕상과 달리 4軀 1體인 四天王像으로 대다수 제작된 점, 후기로 갈수록 천의의 표현이 번잡하게 표현된 점 등은 다르며, 이밖에 사리기·석탑·부도·석등 등 표현유물마다 조금씩의 조형적인 차별성을 보이며 전개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통일신라 전기에 해당하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중반은 唐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인 양식이 유행하던 시대로 특히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唐代 전기에 유행하던 양식들이 활발히 표현된다. 이러한 양상은 통일신라 후기 9세기 전반까지 지속되다가 9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양식적인 면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차는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전라도 지역의 부도에서 肩布를 두르거나 毘沙門天像의 양식적 요소인 높은 보관 및 長身甲을 착용한 예가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라도 지방에서의 활발한 신앙식의 유입은 9세기대 통일신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西海 항로가 위치한 지역적 조건에 의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유입이 가장 용이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덧붙여 통일신라 사천왕상이 후기로 갈수록 전기에 비해 표현된 조형물도 다양해지고 지역적으로도 경주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감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본 고를 맺고자 한다.

통일신라는 왕족이나 급찬 이상의 인물을 遣唐使로 파견하여 중국 唐과 활발한 문물교류를 펴고 있던 시기였다.<표7>참조 그러나, 삼국통일 후 唐 軍逐出이라는 정치적 상황은 당시 唐과의 교류관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文武王 9년 이후에는 대부분 謝罪使에 그치고 있으며, 神文王과 孝昭王은 唐 高宗의 책봉에 謝恩은 물론 遣唐使도 파견하지 않고 있어 文武王 9년 이후 聖德王 2년까지의 34년간은 사실상 국교단절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³¹⁾ 이후 聖德王代부터 대당외교는 적극화되어 入唐使의 왕래에 의한 교역품은 시기별로 다양해지고 있었다. 즉, 8세기 이전까지 수출품은 金·銀·銅·牛黃·布木·人蔘·牛

31) 申澧植, 『統一新羅의 對唐關係』, 『韓國古代史 新研究』(1984), p.330.

黃·美髮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9세기에는 金·銀製의 佛像·佛經 등의 제 품³²⁾이 보내져 이전의 원료중심이던 교역에서 벗어나 종교·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수입품도 曆法(文武王14년)·最勝王經(聖德王3년)·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圖(聖德王16년)·紫袍와 錦細帶(聖德王29년)·道德經(孝成王2년)·佛經(興德王2년)·茶種子(興德王3년) 등³³⁾으로 후대로 갈수록 문화적인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대는 통일신라 전기에 못지않게 문화적 욕구가 넘치는 시기로 중앙집권적인 전제왕권 하에서 중앙에서만 집중적으로 조형되던 통일신라 전기와 달리 지방에서도 중앙 못지않게 예술의욕이 활발하였으며, 이는 통일신라시대 후기로 갈수록 지방에서 더욱 활발히 제작되고 있는 사천왕상의 예에서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32) 申滢植, 『統一新羅史研究』, 三知院 (1990), p.295.

33) 申滢植, 앞의 책, p.295.

〈丑7〉 統一新羅의 遣唐使³⁴⁾

入朝使	官等·官職	入唐年代(貴國年代)	使行目的·活動
金 欽 純	角干	文武王 9년 (669) [670]	謝罪使
金 良 圖	波珍飡	文武王 9년 (669)	謝罪使
祗 珍 山	級飡	文武王 9년 (669)	獻磁石
金 福 漢	大奈麻	文武王 9년 (669)	獻木
原 川	級飡	文武王 12년 (672)	謝罪(奈麻 邊山大동)
金 思 讓	阿飡	聖德王 3년 (704) [705]	佛經 가져옴
金 貞 宗		聖德王 12년 [713]	詔勅 전달
金 風 厚		聖德王 14년 (715) [716]	
金 欽 質	王弟	聖德王 25년 (726)	
金 榮	副使	聖德王 34년 (735)	
金 相	大阿飡(王弟)	聖德王 35년 (736)	
金 隱 居	伊飡	惠恭王 3년 (767)	冊命요구
金 俊 邕	大阿飡	元聖王 5년 (789)	侍中 卽位(昭聖王)
金 彥 昇	大阿飡	元聖王 6년 (790)	上大等 卽位(憲德王)
金 力 奇		哀莊王 9년 (808)	冊命요구
金 陸 珍	大阿飡	哀莊王 10년 (809)	謝恩
金 昌 南	伊飡	憲德王 1년 (809)	告哀
金 憲 章	王子	憲德王 2년 (810)	金銅佛像 헌진
金 張 廉	王子	憲德王 9년 (817)	
金 柱 弼		憲德王 14년 (822)	
金 能 儒		興德王 6년 (831) [832]	溺死
金 大 廉		興德王 4년 (829)	茶種子전래
元 弘	阿飡	文聖王 13년 (851)	佛經·佛版전래
金 富 良	阿飡	景文王 2년 (862)	溺死
金 胤	王子(蘇判)	景文王 9년 (869)	謝恩
金 處 誨	兵部侍郎	眞聖女王7년 (893)	溺死
金 樂	倉部侍郎	景明王 7년 (923)	金幼卿대동
金 岳	倉部侍郎	景明王 8년 (924)	
張 芬	兵部侍郎	景哀王 4년 (927)	朴術卿대동(後唐)
金 日出	執事侍郎	敬順王 6년 (935)	李儒대동(後唐)

34) 申濤植, 『統一新羅史 研究』, 三知院, 1990, pp.294~295 表6.